

## 2016 년 4 월 24 일(주일) (침례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5-19)

### <도입>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수 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날 유대교와 이슬람의 종교의 기운이 드세고, 성전에 대한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열망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길은 그들과 대항하고 싸우고 이기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전히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탄생하게 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가까이 지냈던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몇 백명의 따르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한 사실로서 증거되었습니다.

### [1]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한 일면을 알 수 있습니다. 21:1 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호수(갈릴리 호수)에서 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오병이어)을 일으키시고,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한센 병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등 많은 일이 있었던 곳(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해당)입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세 번을 연거푸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 “나의 죽음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 죽음 너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 다시 나타난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죽으심을 옳게 인정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나도 예수님의 죽음의 길이 옳다고 믿고 죽으신 예수님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부활을 가능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수준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 고백 속에는 ‘나도 주님과 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 [2] 이 질문은 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질문.

이 질문은 늘상 우리에게 들려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신이 죽음의 상태(불안, 위축, 상함 등...)를 경험할 때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푸념하고 한탄하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새 삶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결국 예수의 죽음이 부활로 반전되며,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선포했으므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옳다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셨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나 또한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을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목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교회의 성도라면 모두가 예수님의 양을 목양하는데 초청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것이 목양입니다. 직장에서 선배들과 후배들을 잘 섬기고 도우며 협력하는 것도 또한 목양의 한 차원입니다. 이 목양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죽음입니다.

나의 삶의 소명인 목양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랑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길입니다.

#### <맺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늘 진실하게 '사랑합니다'로 대답하며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침례를 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수세자, 김지혜, 김정우 성도님은 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사랑의 결단 아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당신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많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것은 아닐까요?
2.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했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의 길은 배제될 수 없고,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주님의 죽음의 길까지도 사랑한다면 나도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죽음의 길이란 무엇일까요?